

“주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나요?”

감사선교재단, GBC 주최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 위로, 십, 재충전의 시간

감사한인재단(대표 김영길 목사)과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은 지난 6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2박 3일간 감사한인교회 기도원에서 현역 담임목사를 초청해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를 개최했다.

월요일 오후 2시 감사한인교회를 출발한 버스는 3시 30분에 기도원에 도착했고, 4시에 기도회 개최예배를 드리며 공식일정이 시작됐다.

김영길 목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라는 전체 주제 아래,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채택해 9번에 걸쳐 설교했고, 온전히 ‘말씀, 기도, 나눔’으로만 채워진 기도회는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회를 연상시켰다. 참가자들은 침낭에서 잠을 청하는 상황에서도 마음 깊은 곳의 고민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말씀으로 충전되는 은혜를 체험했다.



감사선교재단과 미주복음방송(GBC)은 6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감사한인교회 기도원에서 현역 담임 목사들을 초청해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를 개최했다. 7년간 목회하며, ‘목회를 지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지니고 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한 목회자는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받고 평평 울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기독일보

김영길 목사는, 목회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설교를 이어 나갔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과 ‘생명’이고 세 번

째는 ‘보냈다’는 말이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세상에 파송한 자이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하신 일

은 사람을 만나서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다. 목회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요, 목회자 자신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자.” 조셉 리 기자 → 3면에서 계속



“신앙 암흑기 ‘3040 세대’ 주축 교회 되려면 ...” 용인제일교회에서 캠프데이를 위해 교회 마당에 텐트를 설치했다. (관련기사 6면)



본지가 주최하는 <소그룹 리더 세미나>가 7월 8일(월) 세계선교교회에서 개최된다. 로이스 조원장과 써니킴 목사가 강사로 선다. (관련기사 2면)

바이든, 美 불법체류 배우자 영주권 보호 시행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새로운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비시민권 배우자 및 자녀를 둔 미국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 새로운 절차는 특정 비시민권 배우자 및 자녀가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 자격을 갖추려면 비시민권자는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

적으로 결혼해야 하며,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보호 자격을 갖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 왔다.

신청은 사례별로 승인된다. 이 프로그램에 통과된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 기간인 3년 동안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으며,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배우자 약 50만 명, 그리고 부모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21세 미만의 비시민권 자녀 약 5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이 행정 조치는 DACA(미성년 입국자에 대한 추방 유예 조

치) 수혜자들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추방 보호를 제공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개인들이 자신의 기술과 교육을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행정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급 기술 직업 제안을 받은 DACA 수혜자와 기타 드리머(Dreamer)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위한 취업 비자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사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셀비의 광가성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자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리스
 뱅크리스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해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제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소그룹, 교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성도들 막는 해결책”

본사 주최 소그룹 리더 세미나 강사 인터뷰 로이스 조 원장(소그룹 리더십 아카데미), 씨니 김 목사

로이스 조 원장(소그룹&리더십 아카데미 SLA, Lois Cho's Small Group & Leadership Academy 원장)은 30년 간 소그룹 사역과 소그룹 리더 훈련 사역을 해왔다. 그는 소그룹 사역이, 그들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7월 8일(월) 오전 10시 본사 주최로 <소그룹 리더 세미나>가 LA에 있는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에서 열린다.

세미나를 이끌 로이스 조 원장은 미연합감리교회 소그룹 아카데미 훈련원장을 역임, CRC 커피레이크 북미주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씨니 김 목사는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로서 다문화 소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으며, LA씨티교회를 담임하며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왔다.

지난 6월 14일, 두 강사를 만나 이번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씨니 김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래리 오스본(Larry Osborne, 노스코스트교회 담임) 목사가 그의 책 『Sticky church』에서 소개한 소그룹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래리 오스본 목사님은, 교회 뒷문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의 솔루션을 소그룹에서 찾는다. 그가 내놓은 방안은 주일설교가 주중에 깊이 있는 공부로 이어지도록 하는 모델이다.”

LA씨티교회는 어떤 소그룹 모임을 진행했나?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로 소그룹을 했다. 토요일 오전 8시에 전 지체들이 교회에 모여서 국민체조와 찬양을 하고, 각 그룹별로 나눠서 말씀을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읽고 다른 사람들은 눈을 감고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문장을 침묵 속에서 묵상하고 성경에서 주신 은혜를 나눴다. 그 모임을 마치면 11시 30분 정도가 된다. 각 소그룹 모임이 끝난 후에는 각 팀에서 특별한 부분을 나눴다.”

소그룹 구성 방법은?

“처음 소그룹을 구성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묶는 것이다. 어느 것이 꼭

다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다른 문화 속에서 충돌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섞어야 할 때가 있다. 처음 소그룹을 시작한다면 비슷한 사람끼리 묶는 것이 안전할 수는 있다.”

소그룹 재구성 효과적일까?

변화를 주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그룹을 교체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에 대해, 로이스 조 원장은 소그룹 내에서 직접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소그룹에서 서로를 알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성장해 가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한 학기만에 서로를 깊이 알기 쉽지 않다. 교회에서는 일년에 한 번씩 교체해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을 통해 성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도 전에 기회를 앗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지루해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자체적으로 성장해서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해 나가야 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부딪히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못 얻게 된다.”

그는 이번 세미나가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소그룹 세미나답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소그룹에 대한 멘토링을 하려 한다. 관심이 있는 분들, 목회자이지만 소그룹 리더가 되어야 하는 분들”이 참여했다.

소그룹 형식 간소화

로이스 조 원장은 시대가 바뀌며 소그룹 역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형식으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나눔이 주가 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했다.

“옛날처럼 형식을 과하게 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밥 먹는 것을 생략하고 장소도 가정을 오픈 안 한다. 카페에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주일에 예배 끝나



로이스 조 원장(소그룹&리더십 아카데미). ©기독교일보



씨니 김 목사(LA씨티교회 담임, 교차문화학 박사) ©기독교일보

고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에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한 것 같지만 하고 싶어 한다. 그런 것을 편하게 들어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그룹 리더의 정체성, 역할은?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소그룹원들을 잘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고 로이스 조 원장은 말한다. 그는 이외에 한가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소그룹원들을 잘 섬겨야 한다. 동시에 목회자의 동역자라는 역할을 잘 알아야 한다. 평신도 리더를 세워놨는데 나중에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그룹원들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평신도 리더의 첫번째 역할은 목회자의 동역자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다.”

로이스 조 원장은 CRC 교단에서 미국 전체 리더들 앞에서 콘퍼런스를 했던 경험을 나누며, 그가 ‘소그룹 사역을 40년 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 보라’고 했을 때, 백발의 백인들이 다 손을 들었다며,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시에 소그룹 리더로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라고 설명했다.

“참여자들이 받는 은혜의 용량

과 인도자가 받는 용량은 다르다. 더 큰 성숙을 경험하는 것은 인도자라 할 수 있다. 소그룹 리더로 계속 헌신하기 쉽지 않다. CRC 교단에서 미 전체 리더들 컨퍼런스를 했다. 소그룹 리더들이 다 오는데, 거기에 40년 한 사람 손들라고 하면 백발 백인들 손을 다 든다.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계속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얻는 엄청난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30~40년 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 내 갈등 해결 방법은?

소그룹 사역에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씨니 김 목사는 소그룹의 문제라기 보다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그룹에서 갈등은 꼭 있다. 대부분, 이런 부분을 놓고 소그룹에 문제가 있다고 상담을 해 온다. ‘누구때문에 소그룹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 소그룹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소그룹과의 관계도 해결될 수 있다.”

소그룹 멘토링, 리더들 모임

로이스 조 원장은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을 위한 모임과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갖는다. 소그룹 리더에게는 그런 게 없더라. 요즘은 소그룹도 학기를 두고

쉬는 팀을 둔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를 돌봐줄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소그룹 리더들은 리더들끼리 모임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 하면서 힘들었던 것, 리더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나누며 채워져야 한다.”

씨니 김 목사는 “저희 소그룹을 운영했을 때는 3개월한 한 번씩 소그룹 리더들과 리트릿을 갔다. 밤새 이야기하고 푸는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것 먹고 다 푸는 시간을 가지니 해결이 되고, ‘누군가 소그룹 리더로서의 나의 어려움을 알아 주는구나’, 특히 ‘목회자가 알고 있구나’, 이 부분에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씨니 김 목사는 “소그룹 리더는 목회 리더십과 동역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자리”라며, 이러한 소그룹 리더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스 조 원장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극도의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별히 소그룹 리더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 소그룹 리더들은 그 소명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소그룹 리더 세미나의 등록마감은 6월 30일(일)이며, 선착순 30명이다. 등록비는 \$20이다. **주디 한 기자**

 개회사 KWMC 상임의장 고석희 목사	 개회설교 KWMC 대표의장 이승중 목사	 성찬식 나성명림교회 박은성 목사	 아침설교 알바니메일교회 김한요 목사	 아침설교 와싱턴중앙로교회 류응렬 목사	 아침설교 헬로우십교회 김대영 목사
 저녁설교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저녁설교 은혜찬인교회 한기홍 목사	 저녁설교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	 성경강해 심자기교회 양성일 목사	 성경강해 Douglas Petrovich 교수	 성경강해 캐나 선교사 진재혁 선교사
 주제강의 유엔 식량농업기구 기술고문 <대한인도선교회 (KIM) > 공동대표 김해구 박사	 주제강의 UK Cross mission 선교사 배안호 선교사	 주제강의 LA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주제강의 i2 ministry Joshua Lingel 교수	 주제강의 WEA Ef Tendoer 감독	 주제강의 복음의전환 이사장 고정민 장로
 성교대담 KWMA 사무총장 강대홍 선교사	 성교대담 KWMF 회장 방도호 선교사	 주제발표 Global Connectors for Advancement 대표 김앤드류 선교사	 주제발표 KWMC 사무총장, 글로벌연호 대표 조용중 선교사	 폐회설교 필그림선교교회 양준길 목사	 특별 찬양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예수

구원의 그 이름

Jesus, No Other Name!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행 4:12)

대회 참가 등록 안내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 kwmc2024.org
 등록혜택 : 식사(6회), 책자, 기념품, 전문영역 참가, 일반영역 참가 자격 등
 문의 : 이명철 사무국장
 213-605-2517 kwmc.usa@gmail.com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 11일(목) 장소 : 남가주사망회교회 (Anaheim, CA)

협력단체 : GBC 미주복음방송 선한 사단법인 복음의전환 KWMA 연합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F 한인세계선교사회

주민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 종료 감사예배

“주민발의안 성사 못했지만, 이 동력 부흥으로 연결하자”

가주아동보호법 위해 40만여명 서명에 동참 11월 주민 투표 상정 위해선 54만 6,651명 서명 충족했어야

지난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캘리포니아를 달구었던 주민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이 끝났다.

서명운동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명운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동참한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주민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 종결 감사예배>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서명운동본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찬양과 강태광 목사의 참석자 소개, 심상은 목사의 기도, 한기홍 목사(서명운동본부 대표대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는 “주민발의안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귀한 동역자들의 수고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이렇게 한인 교회가 하나되고 마음을 모은 이 동력을 부흥으로 연결



<주민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 종결 감사예배>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예배 후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한 모습. ©주민발의안 운동본부

하자”라고 설교했다.

결과 보고 시간에는 은혜한인교회(4,736표)에 이어 많은 서명자를 받아낸 주님세운교회(3,427표)의 박성규 목사가 활동을 보고했다. 그는 “이 운동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았다. 이 결과를 성도들에게 알리기가 힘들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이어서 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인 강순영 목사의 활동보고, 감사사

모의 영상 종결 보고, 강순영 목사의 운동본부 재정보고가 있었고, 서명운동 현장을 누볐던 김요셉 목사(마켓 서명운동 주관), 전영숙 전도사(감사한인교회),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회), 최성민 목사(은혜한인교회), 주디하 권사(감사한인교회), 이원석 목사(OC 목사회),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 등이 서명현장 상황을 보고 했다.

전영숙 전도사와 이원석 목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보고를 했다.

이어서 강태광 목사의 인도로 캘리포니아 교계와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합심기도한 후 현민정 목사(은혜한인교회 중보기도 담당)의 마무리 기도,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가주아동보호법(PKCA·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발의안이 11월 주민 투표에 상정되려

면 가주 유권자 약 54만 6,651명의 유효 서명 서명을 제출해야 했으나, 서명 제출일에 접수된 서명자수는 40여 만명에 그쳤다.

가주아동보호법은 자녀의 성정체성 혼란을 막고 부모의 권리 회복을 위해 변호사 중심 보수 단체 PKCA가 지난해 8월 소개한 발의안이다.

남가주 한인 교계 지도자들은 청원서 서명운동본부를 설립해 각 교회와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활발한 서명운동이 벌여 한인으로부터 4만 3,887개의 서명을 모았다. 이번 서명 운동에 참여한 TVNEXT는, 이번 서명운동이 진보 성향 주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불리한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예로, PKCA가 처음 제출한 발의안 명칭은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 Act 2024)’였으나 이후 ‘성전환 청소년 권리 제한(Restricts Rights of Transgender Youth)’이란 부정적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PKCA는 2026년 중간선거 재상정을 목표로 다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주님, 저를 목사로...>에 이어서

셋째 날, 요 9장 1-12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이 전도의 시발점이다. 한 영혼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자”고 촉구한 후, 사역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사역의 열매가 없더라도 나를 보시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너와 나는 뉘 수 없다’고 하신다.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시는지 깨닫자.”

요 21장 15-17절을 본문으로 한 마지막 설교에서는 “목회는 ‘내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 영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목회의 중심이 잡혀야 한다. ‘성도가 적나’, ‘환경이 좋나 나쁘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 참가자들 단체사진. ©기독일보

충성하면 큰일도 맡기신다. 양 떼를 맡기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반드시 보내주시심을 기대하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의 인도로 따라 진행된 성찬식을 통해,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회를 섬긴 감사한인교회 사역자들 및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회 일정을 마쳤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각자의 진지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참석한 이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았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조차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는 간

증도 있었다.

김인철 목사(오렌지카나안 교회)는, “옛날에 기도하러 갔던 생각이 났다. 목사님들과 같이 지내며 무장해제 되었다. 저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헌신하시는 목사님들의 사연을 들으며 숙연해졌다”고 했고, 신현우 목사는 “환경, 물질,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목회자인 저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애즈베리 부흥 운동도 사랑이 주제가 되어 시작되었는데, 우리 역시 사랑의 문제가 그 중심이었다”고 했다.

조덕희 목사(기도와찬양교회)는 첫날 예배에서, “내 안에 예수

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잔에 아주 진귀한 포도주를 부어 주셔서, 그 포도주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했다.

최근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은 이견장 목사(발렌시아 샘물교회)는 자신의 사역이 ‘직선적’이었는데, “사랑의 곡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 부드러운 목회에 대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요한 목사(성암교회)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고, 최호년 목사(주은혜교회)는, “7년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들과 교체하고 싶었다. 7년 목회를 하며 영적으로 재정립하고 싶었고, 내가 계속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도 있었다. 제가 평평 울었던 것은, 김영길 목사님께서 시작부터 몇 년간 하나님께 소명에 대해 계속 물었다고 하셨다. ‘아,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소감을 나눴다.

김영길 목사는 “목사님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도모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도회는 김영길 목사와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3040 세대가 교회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에 대해 고민하던 중,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 즉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동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생각에서 기획됐다.

김 목사는 기도회에 앞서, “은퇴 후 6년 동안 17개 국, 100개 교회를 방문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여러 번 했는데 모두가 다 지쳐 계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 숫자가 줄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가 정제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겨난 게 기도 운동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핫한여름쿨한세일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Ioniq 5 ONLY)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10,0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 PAUL KIM 714.331.3855 | MIKE LEE 714.914.8414 | JUSTIN KIL 213.999.3935 | CHARLEY JEONG 213.276.8959 | JAMES PARK 213.839.3332 | HARLEY KIM 949.433.1378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yundai.com

1-888-644-7114 |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함께 이뤄낸 10년, 다음 페이지도 함께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센터메디컬그룹 10주년

"우리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떻게하면 당신이 더 건강할지,
어떻게하면 당신이 더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지,
어떻게하면 당신이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낼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며 고민하듯
우리는 늘 당신을 위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이 모여 센터메디컬그룹이 10살이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일동 올림.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한국교회 정말 위기라면, 뭐라도 해봐야죠”

“육 안 먹는 교회를 건축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회 건축’으로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교회 ‘용인 글로벌센터’를 건축한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52)가 ‘실패해도 멈추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실행자>에 풀어 놓았다.

용인제일교회는 주일 하루만 사용하는 예배당이 아닌, 주중에도 지역 주민들과 다음 세대가 부담 없이 24시간 언제나 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했다. 여기에 한국 최초 교회 내 편의점부터 PC방과 댄싱 스튜디오, 풋살장과 체육관, 유아와 부모를 위한 트램펄린 놀이방과 카페 등을 갖춰 놓았다.

팬데믹 이전보다 배가 성장을 이루고, 요즘도 매주 20-30명의 새신자가 등록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임병선 목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허물고 짓고 실행했던 여정을 <실행자>라는 책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5월 용인제일교회에서 임병선 목사를 만났다.

-<실행자>라는 제목이 강렬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정말 위기라고 느낀다면, 뭔가 새롭게 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 절실하게 변화를 시도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위기라고 말하면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구조 자체가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뭔가 바꾸려 하면, 교회에서 저항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죠. 대신 하던 대로 하면, 교회에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보단, 뭐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할 지언정, 해봐야죠.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부터 계속 뭔가 시도하는 것이 다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지금이 위기니까, 발을 내딛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실패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저희를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의미 있겠다고 싶었습니다.”

-안식일을 가지면서까지 쓰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여러 도전들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 참 많이 희



임병선 목사는 “신앙을 너무 복잡하고 심각하게만 생각하지 말자”며 “우리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좋아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익사이팅이 되고, 힘들기 감동이 되고, 아픔이 매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생하고 헌신했거든요. 물질보다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탐방도 많이 오시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장로님들 260여 분이 오셨는데, 좋으셨는지 교육부 담당자들과 130여 분이 또 오신다고 해요.

저도 교회 건축하기 전 많은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이 됐지만 탐방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탐방할 수 있는 교회, 외국에서도 구경 오려는 교회를 만들자’는 도전을 성도들께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요즘 해외 한인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저희 교회에 많이들 와 보십니다. 강준민·박신일 목사님 같은 귀한 목사님들도 와 주셔서 감사하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교회 건축 목적이나 과정, 목회철학이나 사역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까 ‘위기 속에 답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답을 찾으셨나요.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을 넘어 200년을 향하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 복음과 구별되는 ‘전통’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사회나 다음 세대와의 사이에 일종의 벽이 만들어졌어요.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래서 저희는 이 벽을 허물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다들 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봤습니다. ‘건축하면 다 육 먹는 시대인데, 왜 건축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최소 몇십억, 최대 몇백억 원을 들여 건축을 하지만, 결국 그 건축물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잖아요. 대신 지역 주민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일주일 중 주일 몇 시간 동안만 사용하잖아요. 주차장만 해도 주일 몇 시간을 쓰기 위해 그렇게 넓은 곳에 설치한다는 게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요즘 트렌드는 가성비잖아요. 이걸 아니나 싶어, 저희는 주차장에 아스팔트를 깔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캠프 행사도 가능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 건물을 불신자들과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좀 파격적으로 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성가대실 같은 부서실이 없다가보다, 한 부서만 독점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가대는 필요한 시간에 ‘녹음실’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감사하게도 지역 주민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 ‘복음과 다른 전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복음과 전통을 헛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복음’은 아니잖아요(웃음).

저희 교회 본당 전면은 전체가 LED로 돼 있어요. 설치 당시에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컸어요. 여기서 영화도 보고 월드컵 때 같이 응원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엔 옆으로 길쭉하게 LED를 설치하는 건 괜찮고, 전면 전체를 다 덮는 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몇 미터까지 덮으면 허용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파격적으로 전면 전체로 설치했습니다. 교회가 위기니까요. 사역자들에게도 ‘성경에 죄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면 다 해보자’고 했습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의미가 있을

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1시간 30분 이상은 못 해요.

제 친구들이 중·고교 시절 어떻게 예수 믿었나 돌아보면, 유일하게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대요(웃음). 친구들 만나러 수련회에 왔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친구들도 꽤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만화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문화적으로 뒤떨어지면서 세상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문제 아닐까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느낀 점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언가 도전하고 시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니 나름의 길이 있고, 그속에서 열매도 분명히 맺힙니다. 작지만 큰 반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벌센터 전경. ©용인제일교회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쫓겨난 분이 아니십니다(웃음).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에 ‘성경적이지 않다’며 우리를 탓하실 분이 아니시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된 비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왜 PC방이 있는가?’, ‘교회가 아이들에게 왜 세상 게임을 굳이 제공하는가?’, ‘교회에 무슨 편의점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물음에 뭐라고 답하시나요.

“어차피 아이들이 교회에서 게임 안 해도, 밖에서 다 합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하면 놀다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기회도 생기겠죠.

PC방도 그냥 열어두는 건 아닙니다. 입장할 때 암호로 성경 한 구절을 꼭 입력해야 해요. 그것만 해

-말씀하셨듯 기득권과 전통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득권을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성도님들이 대부분 순수하셔서, 은혜를 받으면 수용해 주세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딱딱해지죠. 예배를 통해 은혜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설득도 가능하고, 귀가 열립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여받은 권한으로 몸부림치면서 열매를 보여줘야죠. 목회자들이 권한만 요구하고, 책임지지 않거나 핑계를 대면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건 지양해야죠. (다음 호에서 계속)

이대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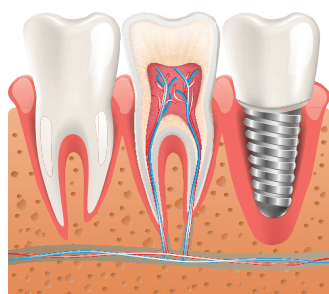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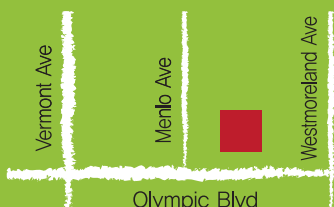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기능성 건강신발
발명 특허 획득
2024. 1.24

통증없이, 가볍하게
걸어보자! 뛰어보자!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적의 신발!!**

체험사례

- “허리통증과 왼쪽 골반, 무릎, 종아리가 고질적으로 아파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젠 신발 신고 너무 좋아요”
- “왼발을 질질 끄는데 이 신발 신자마자 그냥 걷고 있습니다”
- “스트로크로 2개월간 병원에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이 신발 신고 지팡이 버리고 갑니다”
- “족저근막염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엄청 힘든데 이젠 괜찮아요”
-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데 이 신발신고 교정해 발이 편해졌어요”
- “하루종일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젠 안 피곤해요”

신발이 발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망가진 발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발은 신체의 근육과 관절, 골반, 척추 등 기타 통증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월 가정의 달 구매고객 경품 추첨자 발표

- 1등 1명 JGP트랙킹화는 경품권 #1012
- 2등 2명 JGP일상화는 경품권 #1121, #1196
- 3등 4명 JGP 슬리퍼는 경품권#1675, #1018, #1632, #1670
- 4등 25명 가족로션은 경품권 #1033, #1113, #1126, #1061
#1061, #1079, #1613, #1672, #1006, #1006
#1021, #1037, #1057, #1629, #1629, #1078
#1002, #1095, #1094, #1094, #1114, #1066
#1125, #1621, #1621

YouTube **기적신발TV**
www.jgpamerica.com



**예약
접수**



올림픽 갤러리아 상가 연합회 회장 박창우(세종문고)대표(왼쪽)와 JGP 대표 김병석(오른쪽)

신는 순간부터 허리에 강한 힘을 주고 신체 균형을 잡아주면서 신체를 교정합니다.
발을 알고 **신발**을 신으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예약 안내
구입 문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옆

(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04 LA, CA 90006

“저 사람들 안 먹고 죽었는데, ‘나’ 는 먹고 살았잖아”

웨스트레이크교회 한여름밤 말씀축제 노진준 목사,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LA 북서쪽, 사우전 오크스에 위치한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담임 이요셉 목사)는 6월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노진준 목사(순회설교자, 설교 코칭 사역, PCM 공동대표)를 초청해 한여름 밤을 은혜로 물들였다.

15일(토) 오후 늦은 시간인 7시 30분, 말씀을 듣기 위해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를 찾은 이들에게선 피곤한 기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요셉 목사의 기도와 찬양에 이어 노진준 목사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 어머니께 혼이 날 때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했지만 마음 속에는 그만두려는 마음이 없었다며, “죄도 그럴 것이다. 여전히 죄가 즐거운 상황에서, 쾌락을 느끼는 상황에서 멈춘다는 게 쉽지 않다. 어른이 된 다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총동에 의해서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목회할 때 일주일에 5번은 야참을 했다. 저는 과자를 좋아하고 밤에 먹는 것을 좋아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붓는 것 같아서, 제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은 ‘밤에 절대로 안 먹을 거야’였다. 이것은 진심이었다. 저는 정말 야참을 먹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한다. ‘내가 오늘도 밤 차려 달라고 그러면 돼지야’라고 그래. 진심이었다. 그런데, 돼지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야식을 꿀 수 없었다.”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신 장면으로부터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이끌며, 그 안에 담긴 함의를 살폈다.



지난 6월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이요셉 목사)는 순회 설교자 노진준 목사를 초청해 한 여름 밤 말씀 축제를 열었다. ©기독교일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나?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은 안 만나는 것이다. 그 시간이 밤 12시 즈음이었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다.”

“베드로가 자기 의를 과시하고 싶었다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대제사장의 집에 가지 말아야 한다.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 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주님이 걱정되어 따라갔다. 순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애정이 있었다.”

그는 부활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으로 초점을 옮겼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말에서 위선이 느껴진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정상적 반응은, ‘주님 잘못했습니다’이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나. 예를 들어, 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다 걸렸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다. ‘당신 나 사랑해?’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미안해’라고 말해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내가 실수했다. 한 번만 용서해 줘’라고 해야 한다.”

그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그 고백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부름받아 나신 이몸(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은 맘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위선처럼 느껴져 부르지 못했고 했다.

노진준 목사는 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주님

을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삭 번제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 해석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오늘날 교회가 피곤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그분께 감동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와 사랑을 말할 때가 많다. 믿음 조차 우리의 의가 된다. 믿음으로 구원 받지 못한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적 원리지만 실제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힘이다. 우리는 믿음이 나의 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보자. 어느 분이 저를 찾아 오셔서, 임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산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다. 그리고 진짜 다시 살았다. 오늘날 교인들 모습은 어떤가? ‘누가 약을 가져왔지, 그런데 ‘내’가 먹고 살았지. 저 인간들은 안먹는데 나는 먹고 살았잖아. 마치 내 믿음이 궁극적, 실제적 원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는 산상수훈의 준엄한 말씀 앞에, “저는 제가 못하는 것을 아는데 해 보고 싶다.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감동을 준다.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은혜 받으면 안 넘어지는 줄 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진정한 인간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디 한 기자

루이지애나, 최초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최초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공화당 제프 랜드리(Jeff Landry) 주지사는 19일(이하 현지시각)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하원법안 71에



©십계명 기념비.

서명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법치를 존중하려면 원래 주어진 율법인 모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도니 호튼(Dodie Horton)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1월까지 각 공립학교 교실에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 사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게시물은 최소 '11x14인치' 크기의 포스터 또는 액자로 된 문서여야 하고, 십계명의 내용은 포스터나 액자 문서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며, 크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인쇄돼야 한다. 또 설치시 “십계명은 거의 3세기 동안 미국 공교육의 주요 부분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4문단의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CP는 “새로운 법안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세속적인 단체들은 이미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루이지애나주 ACLU, 교회와 국가의분리를위한미국연합(American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종교로부터자유재단(The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등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십계명을 학교에 게시하는 것은 학교에 출석해야 하고 학교가 지지하는 종교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강압과 마찬가지로”라고 했다.

반면 이 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해당 법안은 십계명을 우리 주 및 중앙정부의 기본 문서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은 그 문서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메이플라워 협약, 독립선언문, 노스웨스트 조례 등 기타 역사적 문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화당의 애덤스 바스(Adam Bass) 상원의원은 최근 KALB5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서는 종교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을 포함해 180여 곳에 게시되기도 한다. 난 이 나라가 설립된 법에 기초해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5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美 펜스 전 부통령 “국가 문제의 답은 신앙”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그 가족들. ©백악관

미국 마이크 펜스(Mike Pence) 전 부통령이 남침례회(SBC) 총회 오찬 연설에서 “국가적인 문제의 답은 신앙에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1일 오전 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브렌트 레더우드(Brent Leatherwood) 회장과 함께 총회 오찬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언급하며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공화당에 관심을 보인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2021년 ‘미국 자유의 진보’(Advancing American Freedom) 재단을 창설한 사실도 밝혔다. 또 공화당 내 분열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제한된 정부와 균형 예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강력한 국방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전통적인 도

덕적 가치, 생명권, 종교의 자유와 결혼의 보장,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지 등에 관해 우리 당 내에 매우 건전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한 분열 중 하나는 낙태에 관한 향후 법안이 될 것”이라며 “솔직히 생명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작의 끝에 왔다.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가 미국법의 중심에 있는 생명의 신성함을 회복하느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레더우드 회장은 펜스 전 부통령에게 “아내가 아닌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말라” 등 이른바 ‘펜스 톨’과 관련된 인신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그것은 마이크 펜스의 규칙이 아니라 빌리 그래함의 규칙이다. 우리가 공적인 생활로 바쁠 때 아내 카렌과 난 결혼과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그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

강해진 기자

터키 헌법재판소, 선교 활동한 외국인 9명 추방 결정

터키 헌법재판소가 외국인 기독교인 9명을 ‘선교 활동’ 혐의로 추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들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N-82” 이민 코드를 근거로 한 이 지정이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거주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서는 “이민 및 국경 통제에 관한 공공 당국의 넓은 재량의 범위” 안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사실상 신청인들은 터키에 거주하는 동안,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는 데 어떠한 방해나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불만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N-82 제한 코드가 적용된 신청인인 헬무트 프랭크와 매튜 번 블랙은 자발적으로 터키를 떠난 반면, 신청인 아만다 졸린 크라우제와 제레미 로렌 램버트는 여전히 터키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법률 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이 결정은 다수의 N-82 코드 사건에 대한 최초의 공동 결정으로, 터키 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터키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외국 기독교인에게 만장일치로 불리한 판결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판사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다. 그중 헌법재판소장인 쥐트휘 아르슬란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항소인들의 선교 활동이 공공질서나 안보를 위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르슬란 판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신청인들의 활동이 공공질서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체적인 정당성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반대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을 공공질서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단정적이고 추상적으로 간주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르슬란 판사는 이어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라는 다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는 결정문의 ‘사건 및 사실’ 부분과 ‘신청인들의 주장 및 목사의 의견’ 항목에서 나온 발언들을 통해 N-82 제한 코드는 신청인들의 선교 활동 때문에 적용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것이 신청인들의 종교 자유에 대한 간섭을 구성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약 185명의 외국 개신교 목사들이 추방되거나 터키에 재입국이 금지되었으며, 명확한 정당성이나 정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 단체의 글로벌 종교 자유 옹호 책임자인 켈시 조르지는 “터키에서 수년간 평화롭게 살아온 기독교 종교인들을 정부가 차별적으로 표적을 삼은 행위는 유럽인권조약과 터키가 가입한 국제 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터키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되는 외국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82 코드로 지정된 30명 이상의 외국인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터키 전역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여러 개별 사건에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 총회에서 내려진 첫 번째 공동 판결이다. 신청인들을 대리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오르한 케말 젠기즈는 다수 의견서의 모순과 추방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부족을 지적했다. 젠기즈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이 설명한 대로, 법원의 의견에는 모순이 가득하다. 이 외국인들이 선교 활동 혐의로 추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다수는 종교 자유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 월-금 오후 7:3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김성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금) 오전 8시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성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2세)을 치료하며, 선교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써니김 담임목사
금요일잠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여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박은성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강지원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김재연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 사서라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사서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디오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총동부 주일 오전 11:00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총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총동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총동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오후 1:30 권부환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총동부 오전 11:00

권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신자들과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상현 담임목사
화요일기도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진건호 담임목사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국윤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인성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새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주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꾼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결함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전교우부) (토/주일) 새벽 6:00

김중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주일예배(E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막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美 남침례회, 총회장에 클린트 프레슬리 목사 선출



2024년 6월 10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남침례회 회장 포럼에서 후보 중 한 명인 클린트 프레슬리 목사(히코리 그로브 침례교회)가 연설하고 있다. ©벤티스트프레스

미국 최대의 개신교 단체인 미국 남침례회(SBC)의 회장직에 클린트 프레슬리(Clint Pressley) 목사가 선출되었다.

프레슬리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히코리 그로브 침례교회(Hickory Grove Baptist Church)를 담임하고 있으며, 다른 5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2일 오전 연례 총회에서 진행된 2차 결선 투표에서 프레슬리는 4244표(56.12%)를 획득했다. 또 다른 후보인 테네시주 세비어빌의 퍼스트 침례교회의 댄 스펜서(Dan Spencer) 목사는 3305표(43.71%)를 얻었다. 첫 1, 2차 투표는 11일 저녁에 실시되었다.

1차 투표 결과는 프레슬리가 2289표(25.52%)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미드-아메리카 침례신학교 설교 센터 학장 데이비드 앨런(David Allen)이 1896표(21.14%), 3위는 댄 스펜서가 1585표(17.67%)를 획득했다.

또 다른 후보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 위치한 빌트모어 교회의 브루스 프랭크(Bruce Frank) 목사는 4위(15.56%)에, 테네시주 크로스빌에 있는 흄스테드 침례교회의 제라드 무어(Jared Moore) 목사는 5위(10.27%)에 올랐다. 오클라호마주 로튼에 위치한 퍼스트 침례교회의 마이크 키아본(Mike Keahbone) 목사는 6위(9.68%)에 그쳤다.

1차 결선 투표는 총 득표수가 50%를 넘은 프레슬리, 앨런 및 스펜서 후보 간의 삼파전으로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 프레슬리가 3330표(39.01%)로 1위, 스펜서가 2600표(30.46%)로 2위, 앨런이 2577표(30.19%)로 3위를 차지했다.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게 되자, 가장 높은 득표를 얻은 프레슬리와 스펜서 후보 간의 2차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프레슬리 목사는 올해 1월, 노스캐롤라이나주 먼로에 위치한 리 파크 침례교회의 크리스 저스티스(Chris Justice) 목사에 의해 회장 후보 지명을 받았다. 그는 프레슬리에 대해 "기쁨이 가득한 정통주의자이며, 대사명에 헌신하고, 남침례교인으로서 협력하는 데 헌신하는 신념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저스티스는 또한 프레슬리가 "그의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활력을 불어넣도록 이끌었으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 프로그램과 대사명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프레슬리는 2022년에 남침례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작년에 재선된 바트 바버(Bart Barber) 목사의 뒤를 잇게 된다. 남침례회는 교단법으로 회장직을 최대 두 번의 연임만을 허용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미국장로교, 바이든 대통령에 '아동 성전환 의료 중단' 촉구 서한 결의



국제대학생선교회에 신입 총재로 취임한 데이비드 로빈스. ©국제CCC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CA) 총회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청소년들의 신체를 훼손하는 의료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식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3일(현지 시간) 오전 PCA 대의원들은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관한 위원회의 서신 추천 및 배포 장려하기'라는 제목의 안건 13호를 찬성 985표, 반대 727표, 기권 35표로 승인했다. 이 서한은 작년 총회가 작성한 아동 성전환 수술 관행을 비판하는 서한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보낼 것을 요청했다. 올해 제51차 총회는 이 서한을 "성경에 충실하다"며 적극 지지했다.

원래 서한에는 PCA 회의 및 노회가 주 및 지방 정부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주 의회가 이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또는 성호르몬 치료 금지법을 통과시켜 이 부분을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지난해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제 50차 PCA 총회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되돌릴 수 없는 사춘기 차단제 및 성별 전환 호르몬 처방을 "최악으로 선언"할 것을 청원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올해 1월, PCA 위원회는 정부 공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어 "성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및 외과적 개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 서한은 성별 전환 의료 행위가 미성년자들에게 신체적 변형으로 인해 더 큰 고통으로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이러한 개입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에 반대되고, "불임, 생식력 상실, 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혈전, 뇌하수체 뇌졸중, 가성 뇌졸중 및 골밀도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한은 정부 지도자들에게 "성별 불쾌감 및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미성년자의 건강, 신체적 완전성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분의 직책을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장로교, 사라 영 저서 '지저스콜링' 재검토 결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 온 목상집 <지저스 콜링>의 저자 고(故) 사라 영. ©페이스북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CA) 총회가 고(故) 사라 영 작가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지저스 콜링》(Jesus Calling)이 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3일 오전 PCA 연례 총회에 모인 대의원들은 작년 77세로 사라 영이 사망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 교단 기관 두 곳에 조사를 촉구하는 안건 33호를 투표로 승인했다. 개정된 안건은 제자 양성 사역 위원회에 "이 책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적합하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책을 이전에 재고에서 회수하고 이후에 판매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안건은 PCA 선교 사역 단체인 '미션투더월드'(Mission to the World)에 해당 기관과 이 책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 책에 대한 연구 및 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총회가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947표, 반대 834표, 기권 20표로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토론 중 발언한 대의원 대부분이 이 안건에 반대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페이스 장로교회의 교역 장로인 제리드 크롤리시(Jerid Krulish)는 이 안건이 "위원회의 시간을 낭비하는 낚시질"이라며 반대했다. 크롤리시는 "내가 아는 한, 이 책은 PCA의 어느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이다."

우리 중 99.9퍼센트는 사라 영이 심지어 PCA의 회원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반면, 안디옥 장로교회의 재커리 그로프(Zachary Groff) 목사는 이 안건에 찬성하며 "내가 알고로는, PCA 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으며, 그중에는 안수 받은 교직 장로와 치리 장로의 부인들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그로프는 "우리 위원회는 총회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인 사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일부로 존재한다"며 "이 책은 아마도 PCA 회원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안건을 지지한 플로리다 웨슬리 채플의 크라이스트 킵 채플 교역 장로인 척 윌리엄스(Chuck Williams)는 이 책이 그가 이전에 속한 교회 그룹에 "과교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PCA 선교사이자 작가인 사라 영은 2004년에 출간한 책 《지저스 콜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수천만 부가 팔렸으며, 2013년과 2018년에는 '올해의 기독교 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이 베스트셀러의 성공은 2021년 기도 목상집 《예수님이 들으십니다》(Jesus Listens) 외에도, 어린이 목상집, 성경 이야기책 및 일기를 포함한 여러 작품들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목상집이 신비롭고, 독자들로부터 하염금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고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강혜진 기자

"성경 많이 읽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아져"

미국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려는 의지가 개인의 변영 수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경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미국의 가장 젊은 세대에서 변영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성서공회는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중의 인간 변영 수준을 조사한 '2024년 미국 성경 현황' 세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성서공회 최고혁신책임자이자 해당 보고서의 편집장인 존 파쿠하 플레이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공유했던 성명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Z세대에 대한 다소 우려스러운 통계를 보고했다.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이 그룹은 기성세대 비해 교회와 성경에 대한 연결이 덜하다. 또 그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적은 희망을 경험한다"며 발언을 열었다. 그는 "기성세대는 성경을 읽는 다른 청년들보다 인간변영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을 뿐 아니라,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서 수행해야 할 연구가 더 있지만, 이는 청년들의 변영을 막는 독특한 문제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최신 보고서는 행복과 삶의 만족, 정신적·육체적 건강, 의미와 목적, 성품과 미덕, 긴밀한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안전번영지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1월 4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성인 2,506명으로부터 수집한 응답을 바탕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 따르면, Z세대의 '안전번영지수'(Human Flourishing Index)의 평균은 6.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Z세대는 이전의 세 세대보다 평균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각 세대 내 성경 참여도를 고려할 때, 개인의 성경 읽기 빈도와 성경의 메시지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성경 읽기' 범주에 속하는 Z세대 미국인은 성경참여척도에서 100점 이상을, 인간번영지수에서 평균 8.0점을 받았다. 성경에 참여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인간번영지수도 평균 8.0점이었다.

성경에 참여하는 밀레니얼 세대(1981년에서 1996년 사이 탄생) 미국인은 인간번영지수는 7.9점, 성경에 참여하는 X세대(1965년에서 1980년 사이 탄생) 미국인은 7.6점을 기록했다. 성경참여척도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베이비 붐 세대와 장년층도 인간번영지수(7.4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받는 반면, 성경참여척도가 낮은 젊은 세대 구성원들은 인간번영지수도 낮았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무관심한 X세대 및 밀레니얼 세대 미국인은 인간번영지수에서 평균 6.5점을 받았으나, 성경에 무관심한 Z세대 구성원은 평균 6.0점을 받았다.

이 연구는 또한 개인의 용서 능력과 인간의 변영 수준 사이에 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줬다. "나는 그가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자들의 인간번영지수는 평균 7.6점으로,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의 평균 5.4점보다 훨씬 높았다. 용서에 관한 진술에 대한 동의가 감소함에 따라 응답자의 인간번영수준도 점차 감소했다. 자신에게 용서 능력이 있다는 점에 "다소 동의한다"는 응답자들의 인간번영지수는 평균 7.1점,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평균 6.6점을 기록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디노비자)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명(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니 내 길에 빛이 나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종교동부(아기돌)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만유체)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종교동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

종교동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종교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금요일(영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영양)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OC예배 오후 7:30 수요일(영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4부 주일 오전 11:30

오전 9:45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주일 3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4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날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go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 아시아미용기술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떡갈비, 김밥,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캡슐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같은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합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센터메디컬, 무료 사진촬영 이벤트

완연한 여름이 찾아오면서 센터메디컬그룹의 많은 하반기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센터메디컬그룹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센터메디컬그룹 가입자가 아니어도 만 64세 이상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한 이 이벤트는 기존의 달만 진행하던 이벤트였다. 하지만 폭발적인 호응과 함께 예약을 놓친 시니어들이 많아졌다. 수많은 예약 대기자가 늘어나는 미소가 번지는 해프닝이 생겼고, 이에 센터메디컬그룹은 이번 무료사진촬영이벤트를 "청춘 사진관"이란 이름으로 새단장하였다.

'청춘사진관'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거듭해 개최한 특별 이벤트로 디지털 시대에 잘 볼 수 없는 사진관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의 추억을 회상하게 해드리는 이벤트는 활용도 높은 독사진과 부부 촬영 중 선택하여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촬영된 사진들은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화가 가능한 원본 파일을 USB에 담아 제공하거나, 직접 센터메디컬그룹에 액자에 담아드리는 사진을 픽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장소는 기존 6월까지의 소스물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지만, 7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전문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OPEN!

청춘 사진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청춘사진관 안내

7월	7월
(7월) 12일	26일
8월	8월
(8월) 09일	23일
9월	9월
(9월) 13일	27일

주소: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문의 전화 (714) 904-1701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센터메디컬 그룹은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의 폭발적인 호응에 예약을 놓친 시니어들이 속출하자 다시 한번 사진촬영 이벤트를 개최한다. 장소는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 그로브점이며, 7월 12일과 29일에 진행된다. ©센터메디컬 그룹

월부터는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점에 시니어들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게 장소를 마련했다. 연락처는 714-904-1701이며, Walk-in 참여는 불가하다. 신청 문의는 간단하게 전화로 문의

하여 해당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7/12, 26 : 9시 30분~11시 30분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2024 LA베이직교회 여름성경학교

지난 12월 창립한, LA베이직 교회(이선기 목사, 1304 Cochran Ave. LA, CA 90019)가 7월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이 세상을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로마서 12:12)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장소는 LA베이직 교회이며, 문의사항은 백미진 전도사(213-255-0541)에게 하면 된다.

등록은 교회 웹사이트(labasics.org) 내의 링크를 통해서 하면 된다.

한편, 이 교회는 미국 최대 교단인 '연합감리교회'(UMC)의 동성애 수용 움직임에 반대하는 한인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지난해 12월 3일 야외에서 첫예배를 드림으로 교회를 시작했다. 2024년 3월 3일부로 새로운 장소인 Cochran Baptist Church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민선 기자

JOIN LA BAISC VBS

BREAKER ROCK BEACH

주제말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 받으십시오. (로마서 12:2)
일시: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 7월 14일 주일
장소: LA 베이직 교회 (1304 Cochran Ave. LA, CA 90019)
연락처: 백미진 전도사 213-255-0541
등록: www.labasics.org

“김의식 목사에 모든 총회장 직무 중단·자숙 권고”

예장 통합 총회장 정책자문위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사과"

예장 통합 총회장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자문위)가 김의식 총회장에게 모든 총회장 직무를 중단하고 자숙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19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자문위는 19일 모임을 갖고 현 총회장과 관련하여 사과와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권고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첫째, 우리 모두는 불미스러운 일로 총회가 위기에 처해진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김의식 총회장은 작금의 논란에 대해 결자해지 심정으로 모든 총회장의 직무를 중단하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자숙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 총회 임원회는 목사 부총회장을 중심으로 제109회 총회 준비와 개최에 만전을 기할 뿐



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장 김의식 목사 ©김진영 기자

아니라 총회 모든 업무를 감당할 목사 부총회장에게 철저히 협력해 주시길 권고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교단의 증경총회장인 김태영·류영모·손달익·신정호·이순창(이상 가나다 순) 목사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김 총회장은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거나 총회의 권위가 실추되며 공교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에 총회장 필수 직무 외에 차기 총회준비를 위한 제반 업무를 부총회장에게 위임코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사설

미국 대선에 핵심 쟁점 '낙태권'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태권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두 지지자들 사이에서 낙태권을 놓고 확연히 다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크리스천 포스트(C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주 '문화 문제와 2024년 선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지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성인 8,749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이 대중에 관심을 끌었다. 이 보고서가 낙태 문제 등 미국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의 거의 절반(46%)이 낙태가 "합법"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42%는 낙태를 "모든 경우에 합법"으로 만드는 법을 지지했으며, 낙태를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라고 인식하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50%)은 낙태가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우에 불법"이라는 낙태 절대 반대 의견도 11%나 됐다. 낙태 찬성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 응답을 놓고 볼 때 낙태 문제가 현재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중요 이슈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 절반이 낙태 합법화를 원하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과반수는 낙태가 불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 문제가 올해 말 미국 대선판을 흔들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건국 이후 양당제를 바탕으로 민주당주의를 발전시킨 나라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을,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을 띠며 상호 지지층을 기반으로 집권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 조사 결과는 새롭게 주목되거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은 아니다. 다만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진영에서 이를 참고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유세 과정에서 적극적인 득표 전략으로 삼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가며 집권을 하는 나라다. 두 당 외에 소수당이 있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양당제가 뿌리를 내린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진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고 각기 색채를 띠어온 건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두 정당에서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들이 각기 정당이 내세우는 기본 색깔에 따른 정책만으로 당선에 필요한 지지표를 채우기란 어렵다. 소위 집토끼를 단속하면서 중도층과 나아가 상대 지지층까지 얼마나 내 지지표로 끌어오느냐가 선거

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란 거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낙태 문제 역시 이런 변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과 함께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 법원들이 잇따라 낙태를 제한하는 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보수성이 강한 플로리다 주 등 일부 주에선 잇따라 낙태를 불법화했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즉 낙태 합법화와 낙태 불법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4월 애리조나 주(州) 대법원이 160년 전에 만들어진 '낙태금지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린 것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리조나주의 결정이 미국 대선 가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 중 한 개 주의 결정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가 대선 결과를 좌우해온 결합 주라는 점에서 가볍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특히 낙태권 이슈가 대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란 점에서 다른 주들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 허용을 대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낙태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길 꺼리는 분위기다. 트럼프 진영은 지난 4월 낙태 문제는 '각 주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당초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 보수성향이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 안보 등 다른 이슈에 비해 낙태 문제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건 이 문제가 부각될수록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낙태 문제를 놓고 벌이는 미국 대선 가도의 복잡한 쟁점은 낙태의 모든 권리를 여성에게 주느냐 아니면 법이 일정 부분 제한하느냐에만 운동 신경이 쏠려있다. 그런데 태아도 엄연히 사람인 이상 생명권의 문제라는 걸 잊고 있다.

하나님이 여성의 몸에서 태아를 허락하신 건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는데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이지 내 몸 안에 있는 소유물이나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 않은가. 미국 대선에 쟁점으로 떠오른 낙태 문제가 정치적 유희를 떠나 인간 생명 존중 차원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마치며

복음주의 신앙과 행동하는 신앙인



강태광 목사
주민발의 운동본부 사무총장

기독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 용어가 '복음주의(Evangelical)'라는 말이다. 우선 종교개혁 직후 복음주의(Evangelical)라는 용어는 천주교가 아닌 신교(Protestant)를 의미했다. 이 의미가 그대로 사용하는 교단이 루터교다. 미국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는 지난 2021년 트랜스젠더 목사를 주교(Bishop)로 세운 대표적 진보 교단이다. 이 교단 명칭이 복음주의 미국 루터교회다. 통상적인 복음주의 개념과 너무 동떨어진 교단이다.

현대 신학에서 복음주의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19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신학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성경과 신앙의 초자연성을 부인했다.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흔들자 반대쪽에서 근본주의 신학이 일어났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강력한 반공운동, 순수한 진리의 사수들을 내세우며 교단과 신학교를 탈퇴하여 새 단체를 세웠다.

자유주의의 인간중심 신학은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았지만, 근본주의 신학은 반지성적 분열주의로 평가받으며 사회와 멀어졌다. 양극단의 폐해는 유사했다. 20세기에 기독교 양극단의 폐해를 극복하고 18세기 19세기의 부흥운동의 전통을 잇는 신학 흐름으로 복음주의(혹은 신복음주의)가 등장했다. 이 복음주의운동은 미국과 영국의 교회와 신학교를 새롭게 하였고 기독교의 영적 부흥과 교회의 성장시대를 이끌었다.

복음주의운동은 여러 결실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미국복음주의협회(NA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결성이 큰 결실이다. 또 복음주의 신학의 확산과 복음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 풀러 신학교등을 세웠고 복음주의 지식인들의 대화와 신학 사상의 확장을 위해 복음주의 신학 월간지인 크리스체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를 창간했다. 나아가 빌리 그레함의 중심이 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로잔 운동((Lausanne Movement)을 전개함으로써 복음주의적 기준에 선교 신학을 정리했다.

이 신복음주의 운동을 이끈 걸출한 지도자가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칼 헨리(Carl Henry), 해럴드 오켄가(Harold Ockenga) 등등이다. 이들은 이성에 의한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도 배격했고 분열주의와 반지성주의의 행태를 보이는 근본주의

도 배격했다. 그들은 성경적 선교적 신앙을 주창했다.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 있는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을 갖는다. 현재 미국 복음주의 협회도 다양한 교단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신복음주의가 주장하는 복음주의(Evangelical)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답이 쉽지 않다. 미국과 영국의 건 강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의 역사 시리즈를 편찬했다. 복음주의의 역사 시리즈의 편찬 목적은 폭넓고 다양한 복음주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복음주의의 역사 시리즈의 편찬을 미국 노틀담 대학 역사 교수 마크 놀(Mark A. Noll) 박사와 영국 스털링대학교 역사 교수 데이빗 베빙턴(David Bebbington) 박사다.

역사 시리즈를 편집했던 데이빗 베빙턴 박사는 그는 폭넓은 복음주의 신앙의 공통점을 찾아 정리하는 공로를 남겼다. 그가 정리한 복음주의 신앙의 기준은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잘 정리했다. 베빙턴의 사각형으로 불리는 복음주의 신앙의 기준은 회심주의, 성경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행동주의이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어떤 신학에 있든지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복음주의라고 부른다.

이 네 기준은 상호 작용한다. 예컨대 십자가중심주의는 성경안에서 이해되는 십자가 구속신앙이다. 이 네 기준을 보면 현대 복음주의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행동주의다. 복음주의자는 실천해야(행동해야)한다. 복음주의자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실천이 성경적이고 회심 중심적이고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한다.

복음주의자들은 이 네 기둥을 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명운동도 해야 하고 때로는 약한제도와 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성경적 가치관과 회심한 성도의 선교적 가치와 연동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건, 촛불을 들건, 혹은 정치적 토론을 하건 복음주의자는 성경적이고 선교적 안목과 기준을 가져야 한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 때 성경적 가치관과 선교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복음주의자의 행동과 실천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악법을 위해 싸웠던 서명운동이 막을 내렸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정말 아쉽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복음주의적 전통과 기준을 갖고 이 일을 진행했고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적이었을까?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로 접근했는가?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들이다.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땀뻘 흘리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한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01
간 건강 간건강 가득 밀크씨슬
\$14.90 ▶ **\$11.90**



02
간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03
간 건강 CMG 간N 밀크씨슬
\$27.90 ▶ **\$23.90**



04
간 건강 간에는 밀크씨슬
\$21.90 ▶ **\$18.90**



05
위 건강 위건강
\$18.90 ▶ **\$15.90**



06
신경을 위한 건강제 신경엔 마그네슘
\$19.90 ▶ **\$16.90**



07
항산화엔 비타민 D
비타민D 4000IU
\$13.90 ▶ **\$11.90**



08
항산화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가득
\$15.90 ▶ **\$12.90**



09
항산화엔 비타민 D
CMG 항산화 비타민 D
\$18.90 ▶ **\$15.90**



10
피부 보습 수분가득 히알루론산
\$19.90 ▶ **\$15.90**



11
관절 건강 CMG 프리미엄 보스웰리아
\$17.90 ▶ **\$14.90**



12
홍삼 10ml x30
한국 홍삼 퓨어 데일리 스틱
\$100.00 ▶ **\$89.00**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

목회 칼럼

구해주실 풀무불에 왜 들어가게 하시나?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바벨론 제국의 느브갓네살 왕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10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 전역에 있는 고관대작을 다 불러 성대한 낙성식을 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모두 다 엎드리고 절하게 했고, 만약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유대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곱 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병사가 불의 열기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세 사람을 하나님은 구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느브갓네살 왕이 모든 고관대작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게 되고, 세 사람은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지는 진정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기왕이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구해주시지 왜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굳이 다 겪게 하십니까?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궁극적 목적인 성화가 이

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6회 청소년연합수련회도 기왕 변화시켜주실 청소년들이라면 힘있게 기도원에 올라와 더운데 수도고 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도 변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이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이란 공생애를 위해 30년이라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지나셨습니다. 이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의 ‘과정’을 다 지나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오해와 핍박, 멸시와 조롱, 그리고 수난과 고통의 나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다 지나셨고,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주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삶의 모든 ‘과정’을 말씀에 대

한 순종으로 행하신 구세주이셨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9.11테러 때 무너지는 것은 슬프게도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One World Trade Center라는 새로운 빌딩을 세우는 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힘으로 10년이상 한 층 한 층 쌓아올려 지어야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임으로는 주여, 주여 불렀지만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의 ‘과정’이 되도록 천지는 없어도 일점일획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영성 칼럼

교회는 감성터치 신학은 영성신학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21세기부터 한국 교계에서 급격히 타나난 현상은 교회 감소다. 이는 성도들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1970~80년대 성도들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식었음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찾을 때는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타오르는 뜨거운 감정적 열정으로 가득, 즉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동시에 교회도 부흥하였다. 반대로, 세속 사회문화나, 인간철학, 또는 물질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때는 여지없이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연약해져 냉담한 정신생활을 하게 되었다.

구약에서 성령이란 단어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므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 계시성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존재의 실체를 말한다.

흔히 말하듯,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를 성령의 시대라 하는데, 이 성령시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인간정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던 때였다. 이 변화는 아주 작은 기도회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지적 기능이나 역할에 의한 것이 아닌, 성령에 감동되고 영적 감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인들 신앙의 역사를 예로 들어 보자. 17~18세기,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미국에로의 이민자들은 신앙으로 험란한 이민생활을 이겨냈다. 회중들은 예배와 기도에 힘 썼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신앙으로 정신적 영적 어려움들을 극복해 냈다. 정착과 자녀교육이라는 매우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신앙적 열정으로 해결해나갔다.

그런데, 어려웠을 때는 성령에 의지하여 살던 이주민들이 부유해지고 안정적 생활을 살게 되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또한, 부모들의 헌신적 신앙에 의해 교육받고 성장한 자녀들 역시 세속적 문화나 물질의 번영, 그리고 이성적 사고방식을 주도하는 교육의 영향에 의해 믿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교회나 교단이 분열하기까지 했다. 초기 미국 교회의 위기상황이었다.

이러한 때,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나,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 같은

인물들이 대 각성을 주도하여 부흥을 이끌었다. 이들 설교의 성격은 지적 교리해설같은 것이 아닌 영적 감정에 호소하는 스타일이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대를 나오고, 프린스턴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지성인이었으나, 지적능력이 아닌, 영적 감동, 감화같은 감정적 설교를 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의 신앙을 각성시켜 부흥을 이끌었다.

한국의 경우, 1903년부터 하디 선교사 중심으로 성경공부 하다가, 감동을 받아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1907년에는 평양에서 부흥의 불길로 타 올랐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성령 체험을 평양에서 조선인들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한국은 19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교회도 도시주변에 많이 세워지고, 그야말로 세계사적 부흥의 시대를 열었다. 부모들은 전국의 어느 교회나 실시했던 새벽 4시나 4시 30분에 시작되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의 기도로 교육받고 성장하여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지적으로 교육을 받아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믿음을 말하는 교회를 합리적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적 교육을 받으니 이성으로 기독교를 이해

하려 한다.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기독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대부분, 교리 강해성 설교가 많고 지성인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교리는 웨슬리의 성령운동 이전 수천년, 수백년 전에 이미 위대한 교부들, 신학자들에 의해 다 정립되고, 그로인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학습된 바다. 분명한 것은 지적 신앙만으로는 인간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인들을 변화시킨 웨슬리가 말했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영혼이 변해야 변화될 수 있다.” 영혼은 성령의 역사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적 감성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 성령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성에 호소하는 예배, 설교가 아닌,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한 영적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해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미 마가 다락방에서의 교훈, 미국 1, 2차 대각성운동에서, 한국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1970년대 한국에서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부흥에서 입증된 사례가 있지 않나. 감성에 호소하는 성령의 역사함을 강력히 간구하는 교회로 재탄생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회개와 더불어 성령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길만이 한국교회를 다시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는다.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미성대학교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ACSI, SACS 인증
ATL, ACSI, SACS 인증
학부: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석사: 목회학, 목회학 원목심종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목회학, 중국어 신학, English M.Div.
박사: 목회학, 신학, 선교학, 상담심리학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 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CSI, SACS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io@gmail.com
전화: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9547 EXT.# 112/admin.kor@itsa.edu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메디칼 그룹 주치의



- | | | | | | | | |
|-------------------------|-----------------------|---------------------------|--------------------------|-----------------------|----------------------|------------------------|-------------------------------|
|
한경모
Kyung Mo Han |
조지 인
George In |
백상현
Sang Hyun Baik |
이영직
Young-jik Lee |
이선우
Sonwoo Lee |
강두만
Deno Kang |
강훈구
Hun Ku Kang |
다이아나 김
Diana Maria Kim |
|-------------------------|-----------------------|---------------------------|--------------------------|-----------------------|----------------------|------------------------|-------------------------------|

- | | | | | | | | | |
|-----------------------|--------------------------|--------------------------|---------------------------|---------------------|-------------------------|----------------------|-------------------------|---------------------------|
|
카렌 김
Karen Kim |
김경애
Kyoung Ae Kim |
김성현
Sung Hyun Kim |
김승현
Seung Hyun Kim |
김영진
Evan Kim |
김일영
Il Young Kim |
김정환
Peter Kim |
스티브 박
Steve Park |
손향은
Hyang Eun Sohn |
|-----------------------|--------------------------|--------------------------|---------------------------|---------------------|-------------------------|----------------------|-------------------------|---------------------------|

- | | | | | | | | | |
|-------------------------|--------------------------|------------------------|-----------------------|-------------------------|----------------------|-------------------------|---------------------------|-------------------------|
|
송명재
Mark M. Song |
신동원
Dong Won Shin |
로리 안
Lauri I An |
안승록
Seung R An |
윤은주
Eun Joo Yoon |
잔 음
John Ehum |
이용태
Yong Tai Lee |
임대순
Dae Soon Rheem |
임영빈
Justin Rheem |
|-------------------------|--------------------------|------------------------|-----------------------|-------------------------|----------------------|-------------------------|---------------------------|-------------------------|

- | | | | | | | | | |
|--------------------------|--------------------------|---------------------|--------------------------|---------------------|-----------------------|-------------------------|----------------------|-------------------------|
|
임대순
Dae Soon Leem |
정만길
James J. Jung |
정준
Jun Chung |
정희수
Hee Soo Jeong |
조아라
Ahra Cho |
주우진
Woojin Joo |
프랭크 최
Frank Choe |
허남형
Brian Huh |
최순아
Soon Ah Choi |
|--------------------------|--------------------------|---------------------|--------------------------|---------------------|-----------------------|-------------------------|----------------------|-------------------------|



- | | | | | | | | |
|-------------------------|--------------------------|-------------------------|---------------------|-------------------------|-------------------------|-------------------------|---------------------------|
|
김홍식
Hong Sik Kim |
폴 장
Paul S. Chang |
하태준
Robert T. Ha |
잔 김
John Kim |
홍훈기
Hoon Gi Hong |
김방선
Bang Sun Kim |
송채원
Chaewon Song |
강수웅
Soo Woong Kang |
|-------------------------|--------------------------|-------------------------|---------------------|-------------------------|-------------------------|-------------------------|---------------------------|

- | | | | | | | | | |
|---------------------------|--------------------------|------------------------|------------------------|-------------------------|--------------------------|-------------------------|--------------------------|-------------------------|
|
김대중
Dae-choong Kim |
김성현
Sung Hyun Kim |
김종진
Jongjin Kim |
김진세
Chin Se Kim |
박재만
Jae Man Park |
방재훈
Jason J. Pang |
송명재
Mark M. Song |
신창은
Chris C. Shin |
안규동
Kyu Dong Ahn |
|---------------------------|--------------------------|------------------------|------------------------|-------------------------|--------------------------|-------------------------|--------------------------|-------------------------|

- | | | | | | | | |
|-------------------------|-----------------------|------------------------|------------------------|----------------------|---------------------------|------------------------|-----------------------------|
|
안우성
Woo Sung Ahn |
오문목
Moon M. Oh |
이광혁
John K. Lee |
이용호
Yong Ho Lee |
이효구
Joseph Yi |
알버트 장
Albert Chang |
최원배
Wonbae Choe |
리차드 한
Richard S. Han |
|-------------------------|-----------------------|------------------------|------------------------|----------------------|---------------------------|------------------------|-----------------------------|



- | | | |
|-------------------------|-------------------------|-----------------------|
|
석태영
Larry T. Suk |
임영빈
Justin Rheem |
김학준
Philip Kim |
|-------------------------|-------------------------|-----------------------|



- | | | | |
|--------------------------|----------------------|-------------------------|--------------------------|
|
장국일
Kook Il Chang |
리사 김
Lisa Kim |
박성수
Richard Park |
유경수
Kyung Soo Yoo |
|--------------------------|----------------------|-------------------------|--------------------------|



- | | | | |
|--------------------------|--------------------------|------------------------|------------------------|
|
백성렬
Jason S. Paek |
변상준
Sangjun Byeon |
오희용
Hee Yong Oh |
신예용
Yeyong Shin |
|--------------------------|--------------------------|------------------------|------------------------|

한인 의료진이 가장 많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서울메디칼 그룹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9-0077 / 800-611-9862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1천여 여성들에게 직접 듣다

MZ 세대, 1020 여성들의 25가지 거짓말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낸시 드모스 월게머스 & 다나 그레쉬 | 김설 & 류성민 역 | 세움북스 | 262쪽 | 20,000원

세움북스의 <거짓 분별 시리즈> 두 번째 책. 불안, 외로움, 시대의 조류 등으로 인해 왜곡된 10대·20대 여성들의 속마음과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된 믿음을 낱알이 파헤쳐 소개하고, 거짓말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삶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도록 매우 실제적인 성경 말씀의 적용과 실천을 제시하는 책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고 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영적 속박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나를 기만하고 있는 거짓된 속박으로부터 오직 진리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1020 여성들, 그리고 그들을 말아서 지도하는 교회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MZ가 뭐길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출현했다고 난리다. 지금의 10대와 20대를 묶어 MZ세대로 분류한 뒤, 세상이 그려내고 지적하고 다루는 방식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들은 단지 무례하거나 무지한 세대가 아니다. 이상하고 불편한 세대가 아니다.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죄에 중독된 불쌍한 세대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대이다.

낸시 드모스 월게머스와 다나 그레쉬는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을 통해, 세상이 답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에게 성경의 진리가 답을 준다고 확신하며 말한다. 베스트셀러인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저자인 월게머스는 거짓말로 남성과 여성을 속여 인생을 망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가 10대와 20대 여성 역시 노리고 있다고 이 책을 통해 밝힌다(그들이 겪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10대 사역자 크레쉬 역시 월게머스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온갖 사탄의 거짓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한다.

이 책은 세움북스에서 두 번째로 낸 '거짓 분별 시리즈'로, 첫 번째 책인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의 저자 낸시 드모스 월게머스가 다나 크레쉬와 함께 저술한 책이다. 2008년에 처음 출간된 원서는 2018년 개정됐고, 세움북스는 개정된 책을 번역하여 김설·류성민 부부를 통해 국내 10·20대에게 꼭 필요한 책을 냈다.

첫 번째 책에 익숙한 독자는 이미 두 번째 책의 구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을 ①하나님에 관한 거짓말 ②사탄에 관한 거짓말 ③자기 자신에 관한 거짓말 ④성에 관한 거짓말 ⑤

인간관계에 관한 거짓말 ⑥믿음에 관한 거짓말 ⑦죄에 관한 거짓말 ⑧미디어에 관한 거짓말 ⑨미래에 관한 거짓말 등으로 분류하여 1천여 명의 1020여성들에게 직접 들은 그들이 자주 유혹되는 25가지 거짓말을 다룬다.

책의 처음은 거짓말의 양상을 분석해 누가 속이고 누가 속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극복할 수 있는지 기초 내용을 소개한다. 모든 거짓말을 다룰 때는 각각 거짓말을 붕괴하는 진리를 전달하고, 마지막엔 거짓에 속아 중독되는 과정과 진리로 깊이 빠진 고통의 상태에서 차츰차츰 벗어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의 끝에는 거짓말과 그에 대응하는 진리만 짧게 요약하여, 언제든지 이 책을 통해 배운 것을 복습하고 생각과 행동을 빛도록 훈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책의 첫 번째 독자는 물론 1020 여성들이다. 그들 세대가 직접 선정한 거짓말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1020 세대가 읽기 편하게 간단명료한 내용과 센스 있는 그림 및 도표를 채워져 있다. 포레끼리 혹은 지도할 교사와 함께(학생부 등에서) 나눌 수 있는 질문도 제공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1020 남성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저자가 여성들의 입장에서 더 유혹이 되는 문제를 다룬 것은 사실이지만, 1020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남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책도 있고(혹시 출간될 수도 있지만), 1020 세대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이 책이 오히려 적절하고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1020 세대 자녀를 둔 부모나 학생부 교사에게도 이 책은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끈대처럼 자기 경험을 자랑처럼 늘어놓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요구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마음 속 깊은 곳의 문제



©픽사베이

를 들여다 보고 성경의 진리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어떤 면에서 지금 1020 세대는 더 많고 다양한 유혹에 노출된 혼란스러운 세대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경적 지혜와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과거엔 행동만 교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잘못 판단했지만, 지금은 마음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로 잡는 것을 시작으로 건강한 행동의 변화를 꾀한다.

지금 1020 세대는 이런 성경적 방식의 진단과 처방이 더욱 절실한 세대다. '무조건 내 말 들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마'가 아니라, 왜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상황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일 것을 사랑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금 3040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처음부터 바르게 다루는 방식이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은 정말 좋은 상담 교재, 훈련 및 양육 교재, 그리고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책의 부제가 바라는 바대로, 거짓말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참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3:13



BUT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he has promised, a world filled with God's righteousness.
2 PETER 3:13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생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사역자 청빙

워싱턴주 (WA), 레이스 (Lacey)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전임(Full-time)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부서: 행정 및 Youth Group 전임 부목사(Full time)

- 지원 자격**
 -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 (2)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Youth Group 담당 경험에 있으신 분)
 - (3) 교회 교구사역 및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
 - (4)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지원 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 (2) 최근 설교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링크
 - (3)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4) 추천서 (목사·2인): 목회자 2인 중에서 현재 혹은 이전에 섬긴 교회의 담임목사
- 서류제출 및 마감**
모든 서류를 ocpc91@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자: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 문의 허재영 목사:** T.(253) 282-2322, 저희 교회는 KAPC에 속한 교회로 홈페이지를(www.kocpc.org)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Website: www.kocpc.or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이명의, 정도를 걷다

추상 조형으로 공동체에 관한 비전을 표명하다



이명의, 소망, 65x53cm, 캔버스에 유채, 1989.

화려한 무대 대신 조용히 지내며 맑은 심성을 유지하며 예술의 길 사람과 예술 사랑하며 부드러운 음성과 온화함으로 한평생 살아

이명의(1925-2014)는 오랜 미술 교직 생활, 일선에서 입시교육을 맡아온 탓에 그를 작가가라기보다 교육가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이미지에 가려 정작 그의 작품세계가 어떠한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현대미술가협회전>(1957)과 <현대작가초대전>(1958, 1959, 1960)에 참여하는 등 일찍이 촉망받는 미술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후 어떤 일인지 그의 작품 활동은 뜸해진다. 아마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지는 일에 주력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된 것 같다. 삶의 의미와 목적,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 미래의 소망 등과 같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혹자는 그가 '미술계의 변방'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용기를 내 정도(正道)를 걷는 것을 불사했다는 말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의 기독교 미술단체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초로 소급된다. 1963년 전국기독교교육대회 기간 중에 열린 <기독교미술가 초대전>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1965년 1월 창립대회를 개최한 뒤 1966년 '미술인 상호의

친선과 협조를 목적으로' 향린미술원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회장에 이연호, 부회장에 홍종명이 투표로 선출되었고, 총무에 이명의가 선출되었다.

창립회원 김영재는 이명의가 '옥동자의 산과 역할'을 맡았다고 했고, 협회 고문인 이정수는 선배 화가 이명의가 향린미술원을 회의 장소 및 작품 보관소로 내놓는 등 그가 협회의 살림을 도맡았다고 회고하였다.

이후 이명의는 <현대크리스천 미술전>(1968), <아시아기독교미술전>(1978), <기독교원로작가 초대전>(1893),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국제기독교미술전>(1985) 등 기독교 관련 전시에 출품하면서 기독교 문화의 확산 및 심화에 힘을 쏟았다. 오늘날 크리스천 미술이 있기까지는, 이명의처럼 확고한 철학을 지닌 작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의 작품 세계는 신구약 내러티브를 조형적 언어로 풀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순한 해석을 넘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았다.

느린 듯 하지만 중단없이 그의 작품 발표가 이어지다 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1989년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때였다.

이 전시에는 <창세기 1장>, <광야의 유혹>, <벤엘의 야곱>, <영광의 그리스도>, <순례자>, <의인의 길>, <십자가>, <갯세마네의 기도>, <순교자의 성>, <문>, <부활절>, <새벽기도> 등 20대부터 60대까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작품들을 출품하였다.

출품작들은 그가 경주해온 화풍의 기조대로 추상적이거나 반추상적인 작품들이 주종

을 이루었다. <광야의 유혹>은 시험받는 그리스도를 몇 개의 필선을 빌어 표현하였는가 하면, <벤엘의 야곱>은 굵은 필선으로 인체를 형용하고 배경 역시 가로와 세로로 구성된 간결한 작품이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와 <갯세마네의 기도>는 이보다 훨씬 단순하다. <십자가>는 십자가 이미지만 희미하게 보일 뿐, 화면 전체에는 낮은 채도의 갈색과 청색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회오리 바람같은 이미지를 넣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갯세마네의 기도>는 인체 이미지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위험스럽고 절박한 분위기의 붉은 색조가 주조색으로 사용되었으며, 어둠 밤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미루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갯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표현하였다. 그는 외형적 사실에 집착하기보다는 심연의 의미, 주제가 어떻게 작가의 가슴에 와 닿고 전달되었는지에 집중하였다. "단지 대상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는 그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눈은 이미 눈의 구실을 잃고 렌즈로 전락한 것입니다. ... 비록 선과 점은 한 장의 종이 위에서 평면적인 이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술가의 눈은 깊이에서 깊이로 이동해야 합니다(이명의, '예술가의 눈', 새가정, 1972.4)."

작가는 관념적 유희로서 추상의 양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나 고난 속에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피력하였던 셈이다.

동료였던 홍종명이 밝혔듯 "이명의 선생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불치의 상태에서 신앙의 힘으로 기적으로 소생한 이후 스스

로 남은 생을 '덤'으로 간주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남에게 나타내지 않는 신앙심을 키웠다"고 말했는데, 고난의 체험이 그의 삶을 크게 바꾸었을 뿐 아니라 화풍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화려한 무대 대신 조용히 지내면서 늘 자신의 맑은 심성을 유지하며 예술의 길을 갔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과 예술을 사랑하며 부드러운 음성과 온화함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이런 성품은 후반기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이때의 작품은 훨씬 온화해진 화풍을 선보였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또는 형상과 형상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모아 유기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을 강조하였다. 저음조의 색조가 밝고 화사한 고음조의 색조로 변모하며 화폭과 평강으로 수놓은 은혜로운 세계를 표현하였다. 추상과 반추상을 기조로 했던 데서 기호의 이미지나 기하학적 도형을 기용하는 새로운 면모도 발견된다. 이명의 작가는 원숙의 경지에 접어들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바람을 예술 속에 담아내는데 힘썼다. 개인 신앙의 고백에서 공동체에 대한 바람으로 관심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상징적 표현을 매개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전을 실어냈다.

이명의는 다른 작가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분명한 그 무엇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깨어진 세상을 보고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힘썼다는 사실이다. 작품을 통해 전해지는 세상에 대한 애정이 우리의 귀가에 맴도는 것 같다.



이명의, 사랑이야기 93-06, 40x30cm, 캔버스에 유채, 1993.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자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영혼 구원’ 중요성 알면서도 전도는 미약한 한국교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으로 ‘영혼 구원’을 꼽았지만, 그에 비해 전도에는 크게 힘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회자에게 전도 열정이 있을수록 전도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도 증가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예장 통합총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주)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교단 소속 담임목사 4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전도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8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으로 ‘영혼 구원’을 꼽은 응답자 비율이 52%였다. ‘하나님 나라 구현’ 24%, ‘예배’ 20%, ‘제자화’ 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위였다. 그러나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1순위)으로는 거의 대부분인 87%가 ‘예배’를 꼽았다. 이어 ‘전도(국내)’ 6%, ‘지역사회 봉사’ 3%, ‘교육’ 2% 등의 순이었다. 목데연은 “교회의 사명으로서 ‘영혼 구원’을 압도적으로 꼽은 것과 비교하면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친 점이 대비된다”고 했다.

전도에 할당하는 예산도 교회 전체 예산 중 평균 11%에 그쳤다. 전도 예산이 21% 이상인 교회는 10%에 불과했다. 또 전도 예산은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목데연은 “소형교회가 대형교회 대비 보다 전도에 집중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설교 시 월 1회도 전도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목사들에게 교인들이 전도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4명 중 3명(77%)은 교인들이 ‘매우+약간’ 전도 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중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10%로 교인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다.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전도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부족

해서(37%)’가 가장 높았고,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22%)’, ‘본인 신앙 수준이 전도를 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서(11%)’,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서(11%)’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가 설교에서 전도를 많이 언급할수록 전도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교에서 월 1회 이상 전도를 언급한다는 목회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도를 묻자 ‘매우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였다.

이에 비해 전도를 2~3개월에 1회 언급한다는 목회자들 중에선 21%가 이렇게 답했고, ‘4개월 1회 이하’ 응답자들 중에선 10%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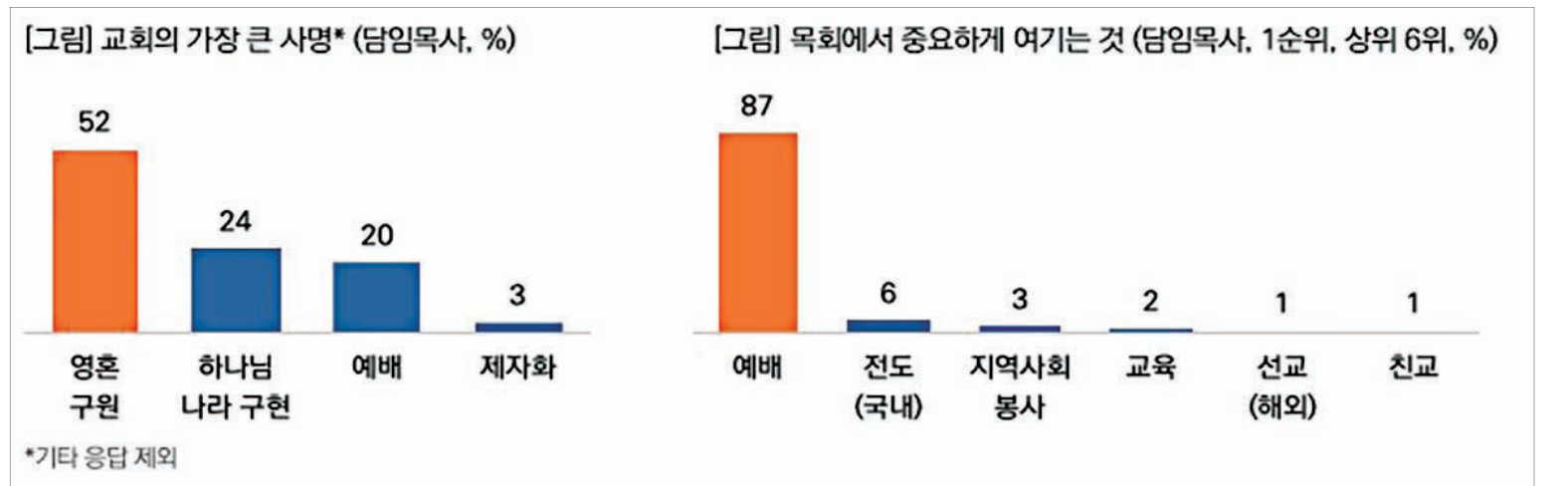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전도로 교회에 출석한 10명 중 7명은 소위 ‘수평이동’이었다는 점이다. 수평이동자 비율은 500명 이상 교회가 79%로 중대형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목데연은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자 한국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하지만 목회자의 관심과 교인의 실행이 사명만큼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목회자가 전도에 대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 실행력, 나아가 전도 열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했다. 목데연은 “따라서 목회자의 식어가는 전도에 대한 열정

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도 교육을 정례화시켜 모든 교인이 이해할 수 있는 교회 내 전도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전도가 왜 중요한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도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에 관한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도 예산을 지금보다 증액시키는 것도 개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무엇보다 교회 내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소그룹이 전도의 거점이 되도록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목회데이터연구소

“여름성경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

미국의 기독교 리소스 웹사이트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 회장인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여름성경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샘 레이너는 칼럼에서 자신이 담임하는 웨스트 브레이튼턴 침례교회의 원로목사인 밥 앨런(Bob Allen)에 대해 소개했다.

레이너는 “몇 년 전 그는 세 명의 아이를 성경학교에 데려왔다. 그중 두 아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며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명의 아이들, 심지어 몇 명의 부모님들도 우리 여름성경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수많은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이런 열매를 맺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을까?”라며 “여름

성경학교는 거의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지역 선교 여행이다. 이것이 웨스트 브레이튼턴 교회에게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여름성경학교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인다. 한 주간 강렬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한다”며 “이는 사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라고 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다. 성령께서 그 가족들을 앞마당에서 우리 교회 문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며 “여름성경학교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레이너는 “복음이 중심에 있다.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며 “의심의 여지 없이 게임, 활동 및 성극은 확실히 즐거움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아이들과 공유하는 위대한 목적,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에 비하면 부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성경학교가 저녁 시간에 열리는 가장 큰 이유로 그는 “늦은 시간에 많은 교회 형제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며 “웨스트 브레이튼턴 교회의 자매들은 항상 놀라운 방식으로 참여하지만, 중년 남성이 화려한 가발을 쓰고 어린이 노래 율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 안에서의 연대가 강화된다. 여름성경학교는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논란이 적은 사역 중 하나”라며 “이 공동의 노력은 세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순간을 공유하며, 이 경험으로 생



©Erika Giraud/ Unsplash.com

겨난 추억은 서로 교류하지 않았을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고 설명했다.

레이너는 “우리는 형제 밥(앨런)과 그의 세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는 여름성

경학교를 맞이한 지 5, 60년이 된 분들도 있다”며 “내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여, 청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질 때, 밥 형제처럼 여름성경학교로 아이들을 인도하고 싶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소그룹 평신도 리더십부터 세워야 합니다

- 강의 주제 1**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 강의 주제 2** 건강한 소그룹의 목회적 적용
- 강의 주제 3** 소그룹의 소통

- 강의1** (오전10:00 ~11:15)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 로이스 조 원장
- 강의2** (오전11:30~12:45) 건강한 교회의 목회적 적용 - 로이스 조 원장
- 점심식사** (오후12:45~1:45) 식사 및 교제
- 강의3** (오후1:45~3:00) 소그룹의 소통 - 씨니 김 목사

일 시: 2024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등록마감: 2024년 6월 30일(일)까지(선착순 30명)
등록비: 20불
장 소: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주 최: 기독일보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Email : chdailya@gmail.com



소그룹 리더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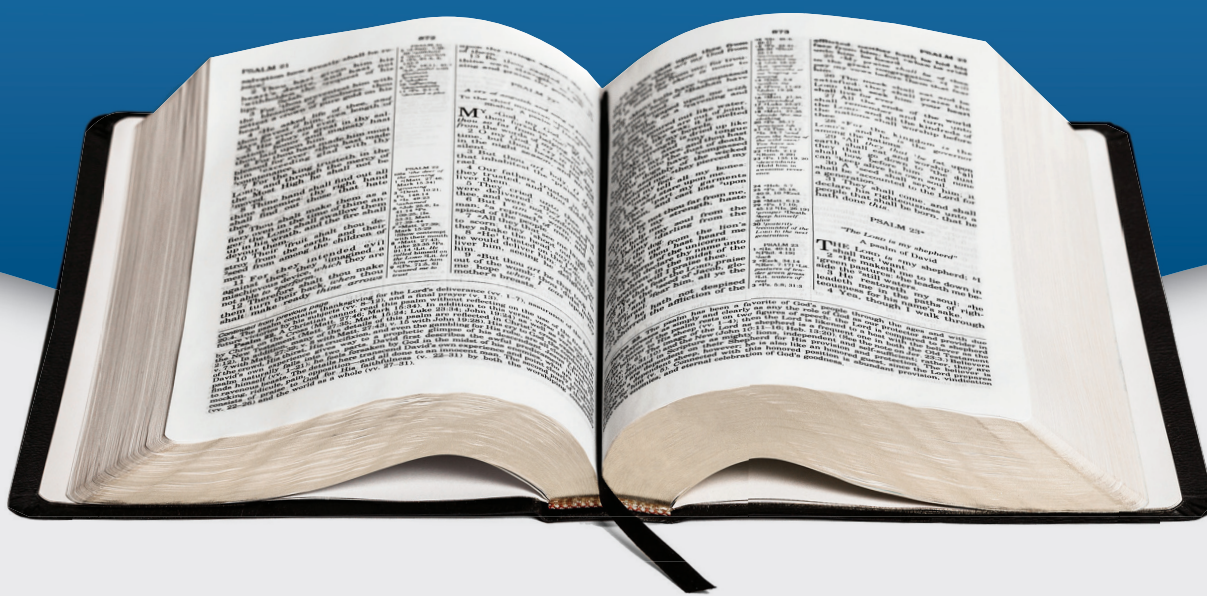
강사: 로이스 조 원장
 Fuller Seminary MA
 미연합감리교회 소그룹 아카데미 훈련원장 역임
 CRC 커피브레이크 북미주 부대표역임
 Small Group & Leadership Academy 대표



강사: 씨니 김 목사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LA씨티교회 담임목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실천신학 교수
 아시아선교연구소 연구원

제2회 성경 필사 장학생 모집

접수기간 ▶ 2024년 6월 30일 주일까지



지난 해에 이어 제2회 성경 필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초에 5개월 간에 걸쳐 신약성경 6권을 끝마친 학생 37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성경말씀을 필사하면서 너무도 많은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주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저마다 가슴에 와 닿은 성경구절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이번 제2회 성경 필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필사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귀한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장 학 금 1인당 **\$1,000** (선정인원 30명)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 만14세~23세)

접수방법 QR코드 참고

장학생 선정 발표 2024년 7월 5일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4년 7월 20일(토) 오전 10시

장소: 세계선교교회 (담임 김창섭 목사)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등록신청



기독교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